

부산 서 스테이크 대회



대회에서 역원 지지를 받는 도 길회 스테이크 부장

지난해 9월 10, 11일 양일간에 걸쳐 1983년도 후반기 부산 서 스테이크 대회가 동대신동에 위치한 대신 와드에서 열렸다. 9월 10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브래드포드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로버트 엘 백엔 장로와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함께 참석하였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대회 주제로 말씀한 연사들은 신권 소유자가 행해야 할 의무 중에서 특별히 회원들을 보살피야 하는 임무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영, 호남 지역 신권 역원들의 훈련 모임에서는 각 스테이크 부장단, 지방부장단, 감독단, 칠십인, 태제사, 그리고 아론 신권 청남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백엔 장로는 아론 신권 청남 지침서와 지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감독단의 청소년들에 대한 위치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신권 소유자들은 한층 더 자신들의 임무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여수 와드 1주년 기념 축제

지난해 10월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 스테이크 산하 여수 와드는 여수 시내의 구석 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대적인 선교 사업을 벌였다. 복음 선교사 10명과 여수 와드 회원들이 총동원된 이번 축제를 겸한 선교 사업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책자를 나누어 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다. 한편 와드 승격 1주년 기념 모임에서는 영적인 말씀, 중창, 축시, 부채춤, 영화 상영, 그리고 율의 신앙을 보여 주는 연극 발표와 다과회가 배풀어졌다. *

호남의 바운티풀

지난해 10월 3일, 전주 지방부에서는 제 3회 "호남의 바운티풀" 모임을 가졌다.

박 주인 전주 지방부장의 감리로 가진 이번 모임에는 110여 명의 독신 성인들과 신권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무도회, 싱어롱, 합창 그리고 연극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발표회가 끝난 후, 잔디 위에서 부페식 다과회를 가졌다. *

음식을 나누는 회원들



신당 와드 준공 기념 축제

서울 스테이크의 신당 와드는 지난해 10월 27, 28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 센터 및 신당 와드 준공 기념 축제를 가졌다. 첫날인 27일 국악제에는 국악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 은희 자매와 친구들이 한국의 전통 궁중 음악과 무용을 발표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뒤이어 연극제에서는 김 형찬 형제의 연출로 "허생전"이 발표되었다. 한편 28일 제1부에서는 선교사들의 장기 자랑과 성지 순례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여 영적인 양식과 웃음을 선사하였다. 제2부 음악제에서는 윤 인자 자매와 도 부민 형제의 피아노와 첼로 협주가 있었고 끝으로 김 상기 형제의 자작곡 발표와 꿈드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



연극 공연 모습



음악제에서 활동하는 모습

한국의 전통 궁중 음악을 연주하는 국악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북 스테이크 회원들

서울 북 스테이크의 후반기 대회가 지난 10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관리자인 브래드포드 장로의 감리로 녹번와드에서 열렸다.

10월 15일 토요일에는 신권 지도자 모임과 토요 대회가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너는 물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사들 모두는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문제와 가정 복음 교육이 활동 촉진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10월 16일 일요일에 가진 총회에서 브래드포드 장로는 서울 신전의 완공을 목전에 둔 이때에 모든 회원이 신전 추천서

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인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지역 합창 대회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온 북 스테이크 합창단(지휘: 박기주 형제)이 음악을 맡아주었다.

대회 방문 역원으로는 브래드포드 자매,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인상 장로 그리고 서울 서 선교부의 에드윈 켈슨 선교부장 부처가 참석하였다.

참석 인원(600여 명),

*

영동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는 페리 장로와 이 호남 장로



관송을 부르는 합창 단원들

영동 스테이크 1983년도 하반기 대회가 엘 통 페리 장로의 감리로 10월 15, 16일에 서울 지역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개편이 있었는데 먼저 박 재암 스테이크 부장의 제1보좌로 수고하였던 배 영천 형제가 해임되고 후임으로서 최철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제2보좌에 안 경일 형제(전 잠실 와드 감독)가 부름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페리 장로는 교회의 사명은 첫째, 회원을 온전케 하며 둘째, 복음을 힘써 전하며 셋째,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집행이라고 강조하였다.

박 재암 스테이크 부장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는 대회 주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의 임무가 막중하므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페리 장로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영동 스테이크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으며 대회장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 하였다.

아론 신권 및 청년회 중창 대회 (동대문 스테이크)

1983년 11월 12일 오후 4시부터 용두 와드에서 동대문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년회 중창 대회를 가졌다.

동 스테이크에서 분리되어 처음 갖는 이번 모임에서 96명의 청년, 청년회가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1등상은 지정곡 175장(찬송가)과 자유곡 "우박은 춤춘다"를 부른 용두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2등상은 지정곡 194장과 자유곡 "Mother of Mine"을 부른 태능 지부, 그리고 3등상은 지정곡 165장과 자유곡 "아가씨들아"를 부른 춘천 와드가 각각 수상하였다. 심사: 조 병하 축복사. *



합창 모습

